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6호 【루계 제24699호】 주체103(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체육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드높은 체육열의로 끓어번졌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계기로 앙양된 우리 인민의 정신력과 승벽심이 각지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위주로 하는 다양한 체육경기들에 참가하여 로동과 생활속에서 련마해온 숭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승부를 다투는 경기참가자들과 응원자들의 열기띤 경쟁심으로 하여 이 땅 그 어디나 명절처럼 들썩이였다. 이번 체육절을 통하여 우리 당 체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시련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상이 남김없이 떨쳐졌다.

체육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 전체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로동과 국방에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며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체육강국으로 전변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중시의 된바람이 일고있다.

각지의 체육단들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와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체육경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한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와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올해에만도 여러 경기대회들이 진행되여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일터와 마을들에서 매일과 같이 체육경기들이 벌어져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의 체육인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과 잇닿아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것은 체육밖에 없다. 최근년간 우리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거두고있는 훌륭한 경기성과들은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체육의 면모와 위력,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민족의 기개가 온 누리에 높이 떨쳐지고있다.

체육은 온 사회에 약동하는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고 사람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힘을 넣어야 하는것이 체육사업이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우리가 비판과 주저를 모르고 언제나 필승의 신심드높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자면 결정적으로 체육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은 사람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심어주고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활력소이다.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화력발전부문의 전력생산자들이 체육인들의 경기성과에 화답하며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고 화력발전량을 2배이상 끌어올린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 생활에서 체육이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가를 잘 알수 있다. 체육을 중시하고 이 사업에 전체 인민이 참가하게 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기백이 차넘치게 하고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날 더욱더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숭고한 혁명정신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문화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들로 키우는것은 문명국건설의 선차적요구이다. 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누구나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살며 투쟁해나가게 할수 있다. 아무리 혁명성이 강하고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완성된 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깃들어있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드팀없는 의지가 어려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이 그렇듯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체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 체육강국건설구상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지녀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체질, 세계적인 체육발전추세에 맞게 주체조선의 체육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체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과 체육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평양체육관과 청춘거리 체육촌을 비롯한 체육기지들이 훌륭히 개건되고 그 어디에서나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 나라를 정치와 군사, 경제분야에서뿐아니라 체육분야에서까지 세계적인 강국으로 높이 떨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려는 맹세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누구나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실현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체육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체육인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체육인들을 보며 체육으로 조국의 영예를 떨칠 희망의 나래를 펼치고있으며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체육마당에 뛰여들고있다.

모든 체육인들은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탐홍색공화국기가 세계에 더 높이 휘날리게 하여야 한다.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승산종목들에 힘을 집중하며 우리 식의 전술체계와 훈련방법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우승의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칠 포부와 야심을 가지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체육인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심어주는 선전자가 되고 체육지식을 배워주는 보급자가 되여야 하며 누구나 체육을 하도록 떠미는 추동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금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각지의 공원들에서는 배구와 롱구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일요일과 명절날들에 도처에서 동, 인민반들사이의 체육경기들이 펼쳐져 주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체육열을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우리는 날로 높아가는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군중체육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체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누구나 아침달리기와 업간체조를 정상적으로 하며 자기 몸에 알맞는 체육종목을 선택하고 짬시간을 리용하여 운동을 하는 습관을 굳혀야 한다.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들에서 체육수업의 질을 높이고 과외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은 물론 그 어디에나 체육열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체육사업에 앞장서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체육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해당 단위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화목하고 전투력있는 집단, 모든 일이 잘되는 단위들을 보면 례외없이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단위들이다.

모든 일군들은 체육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자기 단위의 체육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체육을 전문선수들이나 하는것으로 여기고 체육을 하게 되면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는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뿌리뽑아야 한다. 일군들자체가 체육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히고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여 대중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체육경기에 직접 참가도 하고 그에 대한 지도도 할줄 알아야 하며 종업원들이 체육을 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체육사업에 힘을 넣어 집단안에 생기와 활력, 전투적기백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도, 시, 군 체육지도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도, 시, 군 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당의 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장악지도를 짜고들어야 한다. 도, 시, 군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해당 지역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며 체육단들과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 민족체육을 널리 장려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속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라는 자각을 지니고 체육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체육열풍을 일으킬데 대하여 일반적인 강조만 할것이 아니라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자기 단위의 체육사업이 언제나 활기를 띠고 진행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체육사업에 관심이 없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 누구나 대중체육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야 온 나라에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칠수 있고 강성국가건설에서도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수 있다.

모두다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체육강국에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연구토론회 스위스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9월 27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마르틴 뢰체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재보로서 진보적인류에게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밝혀주고있다.

로작은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한 완벽한 리해를 주는 참된 교과서이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은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리론을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서 완성하고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진로를 명시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인것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회주의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21세기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라틴아메리카지역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던 20세기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또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높은 정치실력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이의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실뿐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신다.

그이를 높이 모시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될것이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재보로, 세계자주화위업의 필승의 보검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그이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는것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라고 간주하면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나라별로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를 결성하며 12월을 추모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진행하자.

2.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는 12월 12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는것을 알린다.

3.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령도자를 높이 칭송하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가자는것을 다시한번 호소한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온 세계의 자주화실현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21세기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만세!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2014년 10월 2일 리 마

벼가을에 이어 낟알털기에서 혁신

각지 농촌들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낸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사리원시 미곡,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과 각지 농촌들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벼가을을 끝낸 자랑안고 계속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는 올해 농사의 마지막돌격전이다. 뜻깊은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적기에 벼가을을 시작하였다.

농업성 일군들은 농사는 t수를 따지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더는 물러설수 없는 정치적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각지 농촌들에 내려가 봄철영농전투때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벼가을을 전격적으로 하도록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지니자면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알심있게 거두어들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각 도, 시, 군의 일군들도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벼가을과 낟알털기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끼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예상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되게 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이동식벼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이삭이 익는족족 가을과 낟알털기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평안북도의 농촌들마다에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였다. 곽산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벼의 품종별특성과 자기 지방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적기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도적으로 제일먼저 벼가을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천군, 신의주시를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벼가을과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 대담한 작전밑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벼가을을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기세로 낟알털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함경북도의 농촌들에서도 벼가을을 와닥닥 끝내고 낟알털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가 벼가을과 낟알털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떨쳐나 실적을 올리고있다. 사리원시, 은파군, 황주군, 연탄군, 서흥군, 금천군, 상원군, 승호군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벼가을을 질적으로 끝내고 낟알털기를 다그치고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애국충정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벼가을과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도 일군들은 례년에 없는 왕가물을 이겨내며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가을걷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비롯한 수십개의 농장들에서는 논판의 물을 제때에 뽑아 벼가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 10일 남짓한 기간에 벼가을을 끝내였다. 덕천시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가을을 남먼저 끝낸 신심드높이 낟알털기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시주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중소농기구준비와 탈곡기수리를 질적으로 끝내고 가을걷이와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움으로써 낟알털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벼가을을 남먼저 끝낸 만경대구역의 농장들에서는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면서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낟알털기를 다그치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은 그날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함경남도, 남포시, 강원도에서도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벼가을과 낟알털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곳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여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우는 한편 이동식벼탈곡기들을 현장에 전개해놓고 가을하는족족 털어내고있다.

날을 따라 벼가을을 끝낸 협동농장들이 늘어나는 속에 낟알털기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년간 마감나르기계획을 이달안으로

랑림림산사업소에서

랑림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통나무마감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나무생산에서 나무를 많이 베는것도 중요하지만 베여놓은 나무를 제때에 나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끌배, 림철기관차, 자동차의 리용률을 부쩍 높이면서 삼포, 오만동, 중흥작업소를 비롯한 10여개가 넘는 작업소들에서 생산해놓은 통나무를 실어내고있다.

사업소적인 마감나르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류벌작업소의 로동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선장 박동길동무를 비롯한 끌배의 로동자들은 예비부속품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랑림호의 수백리 물길로 중흥, 덕우대, 장성, 련화, 중강작업소들에서 생산한 통나무를 회귀당 1천여㎥이상씩 끌어내리고있다. 이들은 바람방향과 물결의 높이에 맞게 끌배운전을 잘하여 통나무나르기에서 연유소비를 극력 줄이고있다.

공무, 운수직장의 로동자들은 끌배가 들어오면 수리정비를 지체없이 진행하여 끌배의 실동률을 계속 높이고있다.

신원작업소의 일군들은 림철기관차의 실동률을 부쩍 높여 산지나무터들에 쌓아놓은 통나무들을 실어내고있다. 기관사들은 구배가 심하고 굽인돌이가 많은 철길구간에 맞게 운전을 잘해나가면서 매일 많은 통나무를 실어나르고있다. 정철호동무를 비롯한 선로소대원들은 철길수리보수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해나가면서 림철기관차의 무사고운행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사업소적인 마감나르기전투에서 운수작업반의 운전사들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김광국, 로영길, 김철민동무를 비롯한 자동차운전사들은 매일 왕복 수십리길을 몇차례씩 오고가며 맡은 통나무수송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작업소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달안으로 올해의 마감나르기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화력탄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부전령일대에 타오른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의 불길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아서 (1)

백두산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오늘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찾는 답사자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의 밀림에서 타오른 혁명정신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가며 빛을 뿌릴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부전령일대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신흥지구 혁명전적지에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으며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여있다.

얼마전 신흥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찾았던 우리는 답사자들과 함께 항일의 나날 백두산위인들께서 헤쳐가신 사연깊은 길을 걸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신흥읍에서 북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30여리 가느라면 독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솟아있다.

소나무, 잣나무, 봇나무 등이 숲을 이룬 그 산기슭에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분포도가 세워져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강사 박수정동무가 분포도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였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분포도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 국내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여러차례 진출하신 혁명활동로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에는 뒤덕봉밀영, 백역산밀영, 고대산밀영, 동오골밀영을 비롯한 여러개의 밀영들이 있다.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는 동해안일대의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지역적령도거점이였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흥지구 비밀근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때문에 자신께서는 1937년과 1938년에 신흥지구에 직접 갔다왔으며 그무렵에 김정숙동무를 비롯한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자주 파견하군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90(2001)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다.

아침해도 뜨기 전에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분포도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나날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국내깊이에로 진출하시였던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신흥지구는 자연지리적으로 보나 주민구성으로 보나 전민항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곳이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고 일제의 군수산업중심지인 함흥, 흥남을 끼고있기때문에 이 지역을 혁명화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고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할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고 주체26(1937)년 8월 신흥지구진출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에서 적들에게 체포되시여 당한 악형으로 불편하신 몸이였다.

강사는 김정숙동지께서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높고 험한 령을 넘으시였는가 하는것을 신흥군 영웅리에 있는 금패령의 유래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암행어사가 함경도일대에 대한 순찰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이 령을 넘게 되였다고 한다. 령이 어찌나 높고 험했던지 길을 잃고 초기를 만나 쓰러졌던 그는 산나물을 뜯으러 왔던 한 녀인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서울로 가게 되였다. 암행어사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다시는 사람들이 그 령을 넘어다니지 않도록 하라는 어명을 새긴 패쪽을 박게 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의 통행을 금한다는 패쪽이 박혀진 령이라고 하여 금패령으로 불리워오는 령, 100리안팎이 무인지경이고 대낮에도 맹수들이 울부짖는 그 험한 령을 녀성의 몸으로 넘으신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강사는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차례나 신흥지구에 진출하시였다고 하면서 해설을 계속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다녀가신지 한달후인 주체26(1937)년 9월 부전령을 넘어 신흥지구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군에 있는 신흥탄광 1갱앞에서 탄부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삼발산회의도 지도하시였다.

다음해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혜산사건의 후과로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며 무장투쟁을 계속 앙양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또다시 신흥지구에로 나오시였다.

부전령비밀근거지의 옥련산밀영과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의 백역산밀영을 지나 뒤덕봉밀영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골회의를 지도하신 후 신흥군 부연리에 있는 오봉산밀영을 거쳐 양덕으로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번째로 신흥지구에 진출하신것은 주체32(1943)년 2월이였다.

후치령비밀근거지를 거쳐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의 두무봉밀영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소부대,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3대로선을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신흥인민무장대의 훈련도 지도해주시였다.

이처럼 항일혁명전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에서는 많은 혁명유적, 유물들과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였다.

13년전의 그날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다 겪으신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신흥지구 혁명전적지분포도앞에서 종합해설을 들은 우리는 장골혁명전적지로 향하였다.

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 장골회의

독산에서 왼쪽으로 뻗은 길은 깊은 골짜기를 굽이굽이 에돌며 부전령마루로 이어져있었다.

골짜기가 하도 길어 장골로 불리운다는 곳이였다.

부전령에서는 찬바람이 내리불어오고 키높이 자란 아름드리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어 해빛조차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락엽이 드문드문 밟히는 길을 따라 20여리 올라가니 장골혁명전적지가 있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력사적인 장골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안겨왔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열정에 넘쳐 연설하시는 20대청년장군의 영상을 우러를수록 가슴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설레였다.

우리는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생들과 함께 전적지를 돌아보았다.

강사 리남희동무가 안내하였다. 몇해전 혁명전적지구역의 산림감독원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자 그의 동생도 언니처럼 혁명전적지강사가 되였다고 동행한 일군이 말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이는 길에 모든것을 바쳐갈 소중한 꿈을 안고 깨끗한 량심의 자욱을 새겨가는 그들의 정신세계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니 너럭바위들이 드문드문 박힌 평퍼짐한 언덕이 나졌다. 그곳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27(1938)년 8월 장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소부대,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강사는 해설을 계속하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길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혜산사건의 후과로 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는데다가 국제당에서 열하원정을 강요하고있는 정세를 분석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정세속에서 우리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자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자신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계속 확대해나가는것과 함께 전민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반군사조직들을 결성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민항쟁의 불길이 온 강토에 타번질 때 반드시 조국해방위업이 성취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확신에 넘치신 음성이 무성한 숲의 설레임소리에 실려오는듯싶었다.

참으로 장골회의는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준 력사적인 회의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항일혁명의 첫 시기부터 높이 추켜든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가 강성국가건설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휘날리고있는데 대한 긍지와 자부로 답사자들의 가슴은 설레였다.

강사는 회의장주변에서 10여점의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였다고 하면서 답사자들을 안내하였다.

《팡복의 길, 자주적립장고수, 항일무장투쟁국내확대, 반일애국력단합, 국내지하조직확대》라고 씌여진 구호문헌은 력사적인 장골회의정신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금일회합에서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오늘을 영원히 잊지 말자 1938. 8》을 비롯한 여러 구호문헌을 통해서도 회의참가자들의 격동된 심정을 잘 알수 있었다.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생 정혁동무는 장골혁명전적지를 돌아본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의 기치밑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자주적대를 굳건히 세워 백전백승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였습니다. 오늘도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드시고 조선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심이 백배해집니다.》

붉은기 휘날리는 뒤덕봉마루에 올라

골짜기를 따라 뻗어간 경사급한 길을 따라 우리는 걸음을 다그쳤다.

산중턱에서부터 흐르던 안개는 산마루에 오를수록 더욱 짙어 몇걸음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옷자락은 물기를 머금어 눅눅해졌고 머리카락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져내렸다.

마을뒤에 있는 덕에 솟은 봉우리라는 의미에서 뒤덕봉으로 불리우는 1 200m를 넘는 산마루에 이르니 갈림길이 나졌다. 오른쪽으로 20리정도 가면 바른골혁명전적지이고 왼쪽으로 600m정도 떨어진 곳에 뒤덕봉밀영이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는 함경남도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함께 밀영을 돌아보았다.

강사 김신향동무가 소부대활동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앞으로 답사대오를 이끌었다.

검은색의 닫긴깃양복을 입으시고 소부대성원들이 따올린 조국의 머루, 다래를 맛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답사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뒤덕봉밀영은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의 중심밀영이라고 하면서 강사는 해설을 계속하였다. 이 일대는 밀영으로서 아주 유리한 곳이다. 량옆은 반원형으로 산들이 둘러막혀있고 뒤에는 부전고원이 펼쳐져있어 유격활동에 매우 유리하였다. 또 앞은 낭떠러지여서 사람들이 발붙이기 힘든 곳이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경사급한 오솔길을 따라 조금 아래로 내려가니 붉은기 휘날리는 귀틀집이 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두차례 나오시여 사업하신 귀틀집이였다. 그 귀틀집자리는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잡아주시였다. 원래 이 골안은 늘 안개가 끼고 흐려있다고 해서 흐리골이라고 불리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기서도 해가 제일 잘 비치는 동남쪽에 사령부위치를 정해주시였다. 참나무만 꽉 들어차있는 이 일대에서 흔치 않은 이깔나무를 멀리서 날라다가 껍질을 벗기고 정히 다듬어서 귀틀을 맞춰 벽체를 쌓은것을 보아도, 분비나무껍질을 한장한장 펴서 지붕을 씌우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돌로 짓눌러놓은것을 보아도 소부대성원들의 성의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노전이 깔린 방안에 놓여있는 애기호박만 한 주전자며 벼루, 라침판 등을 바라보느라니 소부대성원들에게 로동자돌격대, 생산유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을 결성하여 전민항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사령부귀틀집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에 김정숙동지께서 사업하신 집이 있었다.

주체26(1937)년 8월 이곳에 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성원들에게 사령관동지께서 이 부전령산줄기를 타고앉아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킬 웅대한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깊은 뜻을 명심하고 신흥지구 비밀근거지를 동해안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전초선으로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귀틀집의 부엌당반에는 밥그릇과 밥주걱, 사기단지, 병 등이 놓여있었고 부뚜막에는 쇠가마가 걸려있었다. 혁명사적발굴과정에 찾아낸 가마였다. 가마를 엎어놓고 그밑에 밥사발과 밥주걱같은것을 넣어두었는데 하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 서로 얽힌 나무뿌리를 도끼로 토막친 다음 꺼냈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뒤덕봉밀영에서 대원실자리들과 감시초소자리, 샘물터, 20여점의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여 원상대로 보존되여있었다.

우리는 사령부귀틀집 지붕우에서 힘차게 나붓기는 붉은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혁명선렬들이 높이 들었던 주체의 붉은기, 그 기발을 변함없이 추켜들고 대를 이어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걸어갈 맹세가 답사자들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김승표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스빠냐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드리드

에스빠냐왕국 국왕

펠리뻬 6세 페하

나는 에스빠냐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10월 12일 평 양

투사들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평원군 원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백두밀림에서 타오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주별, 월별로 회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당세포비서, 선동원들이 회상기를 깊이있게 연구학습하고 여러 계기와 실정에 맞게 해설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가을걷이로 들끓는 어느 한 작업반포전으로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던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요구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그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심장이 고동치는 한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3일동안에 100개의 작탄을 기어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살며 일해나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고,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받들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살며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한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지금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우일

절세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수첩에 적으신 상품이름

주체48(1959)년 11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 농촌마을의 상점을 찾으시였다.

상점판매원들의 생활형편으로부터 인민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찾는가, 상품공급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드시고 지금 인민들이 무슨 상품을 많이 요구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려워하지 말고 어서 이야기하라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여서야 판매원들은 저저마다 자기 매대에서 인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상품이름을 말씀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올리는 상품이름을 받아외우시면서 그것을 빠짐없이 적어나가시였다.

판매원들은 물론 일군들도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상품공급사업을 계획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으며 이곳 상점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첩에 적어넣으신 상품들과 함께 여러가지 상품들이 도착하는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져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견본신발에 써넣으신 글쪽지

수십년전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신발견본을 보아주실 때의 일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자용비닐신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한켤레를 집어드시고 신발뒤축이며 앞코숭이, 신발안을 유심히 보시다가 한 녀성일군에게 신어보라고 하시였다.

발이 커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고나서 다른 신발을 집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편하지 않는가,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신발끝을 꼭꼭 눌러까지 보시며 이렇게 발이 빽빽한데 왜 불편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신발을 벗겨드시였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년필을 꺼내시여 종이쪽지에 앞이 지나치게 뾰족합니다라고 쓰시고 신발안에 넣으시였다.

다른 녀자용신발을 집어드시고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의 신발뿐아니라 어른들의 신발에도 여러가지 문양을 놓고 리봉도 달아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리봉을 여러가지로 달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글쪽지를 쓰시여 그 신발안에 넣으시였다.

이렇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신발들을 세심히 보아주시고 어떤 신발에는 두세가지 수정안을 또 어떤 신발에는 열가지이상의 수정안이 적혀져있는 종이쪽지를 끼워넣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은 이렇게 다심하고 뜨거운것이였다.

불어난 13가지의 품종

206가지 일용잡화주문목록을 작성할 때의 일이다.

일군들이 만들어올린 일용잡화주문목록에 빠진것이 없는가를 따져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여러명 불러오라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을 오라고 한것은 일용잡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목록을 보고 일상생활에서나 가정에서 필요한 품종들이 빠진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한동안 목록을 들여다보았지만 누구도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녀성의 머리단장에 눈길을 주시다가 녀자머리그리쁘와 녀자머리그물이 없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적어넣되 머리그물은 큰것, 조금 작은것, 그보다 더 작은것 이렇게 세가지로 갈라서 적어넣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목록의 잡화이름칸에 써넣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틔워주시며 또다시 열한가지의 품종을 더 찾아내시여 목록에 적어넣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206가지의 일용잡화주문목록이 완성되였다.

몸소 가르쳐주신 절임방법

수십년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닭알과 오리알을 각각 200알정도씩 구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도처에 가금공장들이 일떠서고 고기와 알들이 생산되고있었지만 가공을 잘하지 못하는것을 두고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일군이 가져다드리는 알들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옷을 벗으시더니 큰 사기단지 두개에 농도를 맞춘 소금물을 부어넣고 한 단지에는 오리알을, 다른 단지에는 닭알을 담그시였다. 무엇에 쓰시려는지도 모르고 알들을 가져온 일군이 무슨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고 황급히 그이를 만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별일을 다 해보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하던 일을 계속하시였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간 그 일군은 절군 닭알과 오리알을 맛보게 되였다.

그가 별맛이라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이 전번에 소금물에 담근것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가금부문 일군들에게 알려주자고 하시는것이였다.

한생의 순간순간을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본사기자 백영미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영예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목표를 무조건 돌파하겠다는 각오가 중요하다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

10월에도 석탄전선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지난 9월 석탄전선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다.

서부지구의 지하막장마다에서 한t의 석탄이라도 더 화력발전소에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나날에 한개의 대규모탄광을 개발한것과 같은 비약적인 생산성과가 이룩되였다. 서부지구 탄광들에서 9월의 자랑찬 증산성과를 공고히 하며 기세좋게 내달리고 북부지구의 탄광들에서도 증산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9월의 자랑찬 전투성과는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약해주었다.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려는 탄부들의 투쟁기세가 앙양될수록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드높은 증산성과를 안아와야 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석탄공업성과 각지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지난 9월전투를 통하여 체험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진리를 온넋으로 새겨안고 경제작전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집중적인 생산지도로 탄광들에서 드높은 생산성과가 이룩되게 하고 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석탄보장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탄광들에 대한 집중지도가 10월 첫 전투에서부터 은을 내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은 침수의 영향으로 생산이 응당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던 월봉탄광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고 걸린 문제들을 한가지씩 풀어주면서 집중공세를 들이대여 탄광의 석탄생산을 월초부터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다.

나라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화력탄생산성과가 확대되고 있다. 이달에 들어와 불과 며칠동안에만도 작업굴진은 전달에 비하여 20% 늘어났다.

2.8직동청년탄광에서 지난 6일 높이 내세운 증산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었다면 천성청년탄광에서는 10월에 들어와서 석탄생산이 본격적으로 장성하고있다. 령대탄광에서도 높은 생산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는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탄광들에 내려가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피가 펄펄 끓게 한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있다. 화력탄보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의 생산성과도 좋고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의 생산실적도 좋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는 이달에 들어와서도 증산목표에 비해 하루평균 2~3차량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고있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흑령탄광과 경원지구, 온성지구,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화력탄보장단위들에서도 화력발전소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석탄공업성과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참모부에서는 석탄생산의 전망을 여는데 중심을 두고 굴지의 탄광들에서 올해에 이어 다음해에도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주요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고 섬멸전을 들이대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2갱, 천성청년탄광 5갱, 덕성탄광 1갱, 인포탄광 6갱구역을 비롯하여 성적인 주요목표로 선정된 서부지구 탄광들에서의 집중굴진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면 100만t이상의 증산예비가 조성되게 된다.

지금 이곳 굴진막장들에서는 각지 고속도굴진, 굴진소대원들의 맹렬한 굴진전투가 벌어지고 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는 위훈의 발파소리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제남탄광 3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남덕탄광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천성청년탄광 선별버럭삭도화공사를 비롯하여 탄광들에서 석탄과 버럭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들도 빠른 속도로 적극 추진되고있다.

북부지구 탄광들에서도 석탄생산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더 많은 석탄이 팡팡 쏟아져나올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수놓아가고있는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고조를 이루고있다.

더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반드시 돌파한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로 만장약된 탄부들의 증산돌격투쟁에 의해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전력증산의 동음이 거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과학기술은 증산의 담보

◇석탄전선에 새로운 진격속도, 조선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석탄증산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전국각지 탄광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속에 특히 화력탄보장을 맡은 서부지구 탄전들에서 지난 시기에 비해 석탄생산이 1.6배이상으로 확고히 올라섰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앞에는 9월의 전투성과를 훨씬 릉가하는 새로운 증산목표를 돌파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과학기술, 여기에 새로운 증산목표수행의 기본방도의 하나가 있다.

탄광들에서 현행석탄생산을 늘이고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증산의 돌파구를 열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부강조국건설과 그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요탄광들에 나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에 내려간 과학자, 기술자들은 관성식적재운반설비에 의한 무연탄완경사중박층채굴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원가로 채취률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남덕탄광과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우리 식의 새로운 침착기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 침착기는 2시간동안에 평균 6m의 암석굴진작업을 할수 있는 기술공학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침착기를 굴진막장들에서 심빼기천공작업에 적극 리용한다면 적은 품을 들이면서도 탄광들앞에 나서는 방대한 굴진과제를 단숨에 해제낄수 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내수성이 좋으면서도 보다 가벼운 마그네샤동발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한 관성식적재운반설비, 침착기, 마그네샤동발을 비롯한 실용적가치가 큰 과학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한다면 최단기간에 나라의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

◇석탄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는데서 국가경제지도기관과 련관부문, 련관단위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시기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경제지도기관에서는 석탄공업부문과 관련한 연구성과들과 창의고안들을 제때에 생산실천에 도입일반화할수 있도록 심의를 적극 따라세우고 해당한 실무적조치들을 기동성있게 취해야 한다. 특히 각지 기계공장들에서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탄광들에 보다 성능높은 채탄, 채굴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그에 따르는 자재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성에서는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지 탄광기계공장들에 대한 전문화 및 협동생산조직을 짜고들며 현실에서 큰 은을 내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과학기술로 나라의 석탄생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겠다는 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탄광들에 내려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연구종자를 찾아쥐며 그것을 빠른 기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현지보도

비약의 열풍 휘몰아친다

남덕탄광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장에서

여기는 굴지의 석탄생산기지 남덕탄광의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장이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면 탄광의 석탄생산을 비약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3갱 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들이 종합운반갱과 6갱을 련결하는 지하막장의 주요개소들에 좌지를 차지하고 섬멸전을 들이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현재 시간은 14시 50분, 암벽면의 중심에 여러개의 천공구멍이 안전등의 불빛에 별처럼 반짝인다. 굴진작업의 성과여부가 이 심빼기천공에 의하여 좌우된다. 오룡철, 심철민동무들이 암벽면에 착암기를 지그시 내밀었다가는 당기고 또다시 앞으로 내밀면서 천공속도와 질을 철저히 담보해간다. 오룡철동무가 자기 키만큼이나 긴 정대를 암벽면에서 뽑아낸다.

천공시간은 7분,

암석세기가 큰 조건에서 구멍당 천공시간이 7분이면 괜찮다고 곁에 섰던 굴진공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소대장의 표정에서는 그런 기색을 찾을수가 없다.

소대장이 착암기를 잡는다. 드세찬 압축바람소리가 막장을 울린다. 전국적으로도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소대장의 작업모습을 현지에서 직접 보는 우리의 손에도 땀이 배인다.

막장에서는 암벽면을 세차게 두드리는 정머리의 타격소리대신 바람소리만이 울릴뿐이다.

소대장이 틀어잡은 착암기의 정대는 억척같은 암벽면으로 쑥쑥 들어간다. 그때마다 걸죽한 돌물이 흘러내린다. 순식간에 천공작업을 마친 소대장이 정대를 뽑아낸다.

천공시간은 4분 30초!

대단하다.

육박전의 총부리와도 같은 착암기를 소대장이 오룡철동무에게 넘겨준다. 착암기를 잡은 오룡철동무는 소대장의 솜씨를 대뜸 포착하고 정머리의 타격속도와 회전을 조화롭게 맞추며 암벽면을 누른다. 곁에 섰던 소대장은 굴진공들의 착암기유지자세도 바로잡아주고 압축공기의 바람압력도 조절해주면서 소대원모두를 새로운 진격속도창조에로 이끌어준다. 굴진공들이 차례로 착암기를 뽑아낸다.

착암시간은 5분 46초, 5분 18초…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분과 초를 앞당기는 이들의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어느덧 한단면에 대한 전면착암작업이 끝났다.

앞선 교대에 비해 1시간을 앞당겼다고 굴진공들이 기쁨을 금치 못한다. 발파준비를 다그치는 굴진공들,

둔중한 발파소리가 막장을 흔든다.

쿵—쿠쿵—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 체육인들처럼 증산의 돌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이곳 굴진공들의 위훈의 분과 초가 흐르는 막장이다.

조선속도창조투쟁의 불길속에 굴지의 탄전에 새로운 비약의 돌파구가 열리고있다.

본사기자

석탄증산에서 앞장선 영예의 혁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버럭처리도 중요한 고리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에서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과정에 나오는 버럭운반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설비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증산의 많은 예비를 마련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어느 탄광에서나 석탄생산과 선별과정에는 버럭이 나오게 된다. 생산량이 많으면 그만큼 버럭량도 많다.

두 탄광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단위들이다.

이 탄광들에서 석탄선별과정에 나오는 버럭량은 다른 탄광들과 대비할수 없을만큼 많다.

따라서 선별공정들에서 쉬임없이 생기는 버럭을 처리하자면 품이 많이 들고 여기에 동원되는 전차와 탄차수는 다른 지구의 웬간한 탄광에서 하루 생산되는 석탄을 나를수 있으리만큼 많았다.

그러면 최근에 이 탄광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버럭운반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있는가.

벨트콘베아수송선으로

요즘 2.8직동청년탄광에 가면 저탄장으로부터 주변의 산으로 오르는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보게 된다.

자칫하면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석탄을 보내주는 벨트콘베아수송선과 혼동할수 있는데 실은 탄광에서 석탄선별과정에 나오는 버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 제작설치한 벨트콘베아수송선이다.

모든 갱에서 나오는 석탄을 싣고 흐르는 종합벨트콘베아수송선의 단계별선별공정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량의 버럭이 나온다.

지난 시기 이 버럭을 처리하는데 여러대의 전차와 수십대의 탄차가 동원되였다고 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석탄선별공정에서 나온 버럭을 처리하기 위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시작하여 8월말까지 전부 끝내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버럭처리에 리용되던 전차와 수십대의 탄차를 굴진막장으로 넣어주게 되였다.

결과 탄광의 수많은 굴진갱들에서 나오는 버럭처리능력을 종전에 비할바없이 높임으로써 굴진소대들의 굴진실적이 부쩍 뛰여오르게 되였고 증산목표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삭도를 리용하여

이전시기 천성청년탄광에서는 삭도화를 실현하여 주변의 림지들에서 자체로 마련한 동발나무를 제때에 운반해올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삭도를 놓아 많은 설비와 전차의 예비를 얻어내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 과정에 탄광에는 삭도설계와 제작 그리고 리용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자체의 믿음직한 기술력량이 그쯘하게 마련되게 되였다.

탄광에서 버럭운반을 합리화하는 문제가 론의될 때 삭도를 리용하자는 방안이 나오게 된것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있다.

현재 탄광에서는 여러 단계의 석탄선별과정에 나오는 버럭을 처리하기 위한 삭도설계와 탑구조물제작을 끝낸데 이어 본격적인 버럭처리계통에 대한 삭도화실행단계로 넘어갔다.

저탄장과 버럭처리장까지의 수백m구간에 2개의 강철구조물이 일떠선데 이어 나머지 3개의 탑을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공사들이 립체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탄광에서는 5갱과 종합벨트콘베아수송선사이를 오가던 전차대신에 삭도를 놓아 석탄운반문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목표를 제기하고 기술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탄광에서 실천단계에 확고히 들어선 삭도화가 실현되면 버럭과 석탄운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여 석탄생산능력을 비할바없이 높이게 된다.

본사기자 류성국

왜 강습을 자주 조직했는가

대관군 송광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올해에 대관군 송광협동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을 위한 주체농법강습을 10여차례나 조직하였다. 강습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당면한 농사일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농장원들의 물음을 종합하여 대답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된 강습의 실효는 대단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이 농장에서 올해에 들어와 주체농법강습을 자주 조직하게 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을 한마음으로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는 높았다.

리당위원회는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지난해농사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이후 분조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 사업이 농장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는 속에 농장원들속에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려는 열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도그럴것이 농장원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짓지 않고서는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없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기때문이였다.

이런 실정에 맞게 리당비서 원문길동무는 관리위원장 홍순섭동무를 비롯한 관리위원회일군들과 토의하고 작업반기술원들의 역할을 부쩍 높이도록 하였다.

제3작업반 기술원 박광선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의 기술원들은 분조마다 들어가 농장원들에게 종자선택과 씨붙임날자를 비롯하여 선진농법을 포전별특성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었다.

한편 관리위원회에서는 주체농법과 분조관리제를 내용으로 한 록화편집물들을 농장원들에게 보여주는 사업도 따라세웠다.

성과가 있었지만 일군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종합하여 강습을 의의깊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관리위원회에서는 당면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내용들을 강습을 통하여 농장원들에게 체득시키는 사업을 준비있게 잘 조직하게 되였다.

강습은 농장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농장의 진정한 주인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주체농법의 과학기술적요구를 깊이 파악할수록 신심과 배짱이 생긴다고, 이런 강습은 할수록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제기되는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러니 리당위원회가 영농공정이 바뀔 때마다 주체농법강습을 조직하도록 한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차례 진행된 주체농법강습은 실천에서 큰 은을 나타내였다.

농장의 모든 부침땅들에서 그 성질에 따라 지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종자가 구색이 맞게 선정되였으며 포전별, 품종별에 따르는 시비방법이 정해져 같은 땅이지만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훨씬 좋은 작황을 마련하게 되였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은 농촌당조직들이 조직사업만 잘 짜고든다면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참된 주인들로 키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인재를 기다리지 말고 키우자

희천시 마선협동농장 제4작업반당세포 사업에서

최근 몇해동안에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있는 희천시 마선협동농장 제4작업반당세포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재와의 사업이다.

예로부터 이 고장의 자랑은 산자랑, 돌자랑, 물자랑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하던 곳에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오늘은 농사자랑, 선경자랑을 비롯하여 자랑도 끝없이 늘어나지만 자랑중의 자랑은 인재자랑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러면 이곳 당세포가 우리 당의 인재중시사상을 어떻게 구현해왔는가를 보기로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작업반당세포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세울 때였다.

당세포비서 김학철동무가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분조창고들과 집짐승우리를 비롯하여 낡은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새롭게 짓자는 안을 내놓았다.

작업반원들의 놀라움은 컸다.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와 로력도 그렇지만 제일 걱정거리는 건설에 조예가 있는 인재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작업반에는 신통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본 당세포비서는 말하였다.

《물론 우리 작업반에 건설인재가 없는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앉아서 인재가 오기를 기다릴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설을 해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자기 힘밖에 믿을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타고난 인재란 없습니다. 실천투쟁속에서 과학기술을 배우며 우리 모두가 인재가 됩시다!》

당세포비서는 대중운동의 높은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곧 인재를 키워나가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신하였던것이다.

당세포비서는 당원들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에 앞장설것을 호소하였다.

자기 힘을 키워 일떠서자는 당세포비서의 호소는 당원들을 격동시켰다.

그러면 당세포에서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우선 농장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켰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소질과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는 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여기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쥔것이 기술학습이다.

당세포에서는 작업반장 강창호, 기술원 김영애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에게 분공을 주어 기술학습을 잘 이끌어나가게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기술학습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작업반적으로도 조직하고 분조들에서도 작업의 쉴참에 진행하게 하였다.

기술학습에서는 산골농사의 특성에 맞게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문제, 새로운 농기계를 제작하고 지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 축산을 발전시키고 작업반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문제, 건설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 등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기술학습을 자주 조직하는데만 머무르지 않았다. 분조별, 농장원별로 토론과 론쟁도 맹렬히 벌리게 하였다.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있는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워주고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답의 방법으로 토론도 진행하게 하였다.

기술학습을 한 정형을 놓고 분조별로 문답식경연도 자주 진행하여 인식정형을 경쟁도표에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기술학습이 심화될수록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편향들이 나타났던것이다.

농사군이야 농사일이나 하면 되지 않겠는가, 책을 볼 시간이면 김을 한평 더 매겠다고 하면서 기술학습에 열성을 내지 않는것이였다. 지어 일부 작업반 초급일군들까지도 신심이 없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때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군 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에게 리당비서 함성철동무가 한 말이 있다.

《물론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 대중운동의 성과가 지워져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작업반에 과학기술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작업반초급일군들부터 실력전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야 합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잠시나마 나약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분발하여 일떠섰다.

초급일군들은 잠자리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늘 책을 보았고 지식의 탑을 한치한치 쌓아나갔다. 그들을 도와 리당일군들도 발이 닳도록 뛰였다. 초급일군들에게 기술도서들을 구해주기 위해 리당일군들이 걸은 길은 얼마이고 그들과 함께 새 기술혁신안을 완성하느라 지새운 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은 작업반에 그대로 배움의 열풍, 과학기술열풍을 몰아왔다.

농사를 잘 짓자고 해도, 축산을 잘하자고 해도,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자고 해도 알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작업반원들은 농사일을 하는 속에서도 피타게 배웠으며 그 열풍속에서 드디여 인재들이 자기 모습을 하나둘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논벼와 강냉이, 남새농사는 물론 축산, 농기계, 건설분야에서 막히는데가 없이 준비한 박순녀, 허명석, 로경철, 최금옥, 량향숙, 최영수동무들…

인재들에 의거한 작업반의 전진속도는 비할바없이 빨라졌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비롯한 작업반의 공공건물들을 훌륭히 건설하였고 흙보산비료생산을 늘이고 여러가지 생물농약들과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이고 두벌농사의 생활력을 과시하였으며 농촌문화주택들을 새롭게 건설하여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켰다.

인재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일본새도 새로와졌으며 집단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높이 세운 결의목표를 빛나게 실현하고 얼마전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이렇듯 인재로 흥하는 작업반의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눈부실것인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의 높은 뜻을 받들고 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작업반원들을 쟁쟁한 인재로 키워온 이곳 당세포의 사업은 무엇을 깨우쳐주는가.

앉아서 인재를 기다리지 말고 뼈심을 들여 인재를 키우자. 그러면 비약의 지름길이 열린다!

이것은 산간벽촌의 자그마한 한개 작업반당세포에서 창조된 경험이지만 이들처럼 온 나라의 모든 단위들이 자체의 힘으로 인재를 키워 일떠선다면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본사기자 채인철

체육열풍속에 문명한 생활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상 과시

체육절을 뜻깊게 보낸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온 나라가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로 흥성이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쾌승을 이룩한 우리 체육선수들의 성과에 고무된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드높은 체육열의속에 12일 체육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체육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체육발전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해 제정된 전인민적, 전국가적체육활동의 날에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 대학, 학교들에서 국방체육과 민족체육을 비롯한 다채로운 대중체육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석탄공업성, 륙해운성,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락랑은하피복공장,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도의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학교들이 대중률동체조, 건강태권도 모범출연 및 판정사업, 장애물극복경기, 축구, 배구, 롱구, 탁구 등 다양한 체육경기들로 들끓었다.

올해 제19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만수대창작사에서는 부서별구기종목대항경기들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대중률동체조, 건강태권도 등 대중체육활동을 정상화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체육경기들은 집단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더욱 다지고 일터마다에 혁명적기백과 열정이 차넘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1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체육절을 맞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직공들이 유쾌한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을 펼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일떠세워주시고 방직공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일터에서 공장의 책임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구내가 들썩하게 진행한 바줄당기기와 배구결승경기 등은 방직공들의 증산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습과 교육과 학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긍지를 안고 탁구, 배구, 롱구, 집단달리기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진행하였다.

모란봉제1중학교,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 등의 청소년학생들도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온 나날에 익힌 다양한 체육기술로 승부를 겨루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체육절의 하루를 의의있게 보내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탄부들의 경기응원의 함성이 남덕, 인포탄광들과 송남청년탄광을 비롯한 북창지구의 탄전들에 메아리쳤다.

신의주신발공장, 홍주닭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 등에서 펼쳐진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로동계급의 투쟁열을 백배해주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을 비롯한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특색있는 경기들이 떠들썩하게 벌어져 체육절의 희열넘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사리원시의 녀맹원들은 사리원경기장에서 그네뛰기, 널뛰기 등 민족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들을 펼쳐 가족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함흥광장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소년률동체조, 소년태권도, 무릎싸움, 제기차기, 연띄우기, 통일렬차달리기, 줄넘기, 씨름, 팽이치기 등의 경기들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

체육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진행된 체육활동들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각계층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만수대창작사에서－

－중구역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석탄공업성과 채취공업성 정무원들－

환희와 랑만속에 보낸 즐거운 하루

강원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절을 맞는 강원도의 공장, 기업소, 농장을 비롯한 일터와 마을들마다 여러가지 열띤 체육경기들로 하여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문평제련소를 비롯한 주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체육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가지 체육활동에 참가하였다. 도체육지도위원회의 일군들 역시 동명산체육단에 내려가 선수, 감독들을 만나 그들의 훈련성과를 적극 고무해주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온 도가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체육절을 즐겁고 뜻깊게 보냈다.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체육절에 진행할 체육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데 기초하여 모두가 높은 열의를 안고 경기들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날 부서호상간 진행된 롱구와 배구를 비롯한 구기종목경기들과 수류탄던지기, 윷놀이 등 여러가지 국방체육과 민족체육경기들은 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도 여러가지 체육경기들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기관안에 혁명적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강원도의 선수들이 높은 정신력과 만만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은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체육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문천시에서는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여러곳에 꾸려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여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일터와 거리, 마을마다가 체육분위기로 흥성이게 하였다. 통천군에서는 남녀배구와 륙상, 탁구경기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띤 응원속에 치렬하게 진행되였으며 철원군에서는 축구, 씨름, 바줄당기기 등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가 군내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였다.

도의 시, 군들의 책임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체육절을 맞으며 여러가지 다채로운 군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원산의학대학을 비롯한 도의 대학, 전문학교들과 고급, 초급중학교, 소학교들에서도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하며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기쁨을 더해준 민족체육경기

딸랑－방울소리에 경기장이 떠나갈듯

체육절날 사리원경기장은 시의 녀맹원들로 흥성이였다.

달리기, 사람찾기, 공몰고 달리기, 윷놀이 등 여러가지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그네뛰기가 녀맹원들과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매산림, 정방산림, 경암산림으로 나뉘여 벌어진 그네뛰기경기는 이날 진행된 경기들중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응원자들의 열의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꽹과리소리, 북소리, 박수소리로 그네뛰기경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였다.

열렬한 응원에 화답이라도 하듯 쌍그네, 외그네뛰기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힘차게 그네를 구르며 담차면서도 날래고 슬기로운 경기모습들을 련속 펼쳐보이였다.

그네가 하늘높이 날아올랐다가 딸랑－ 하고 방울을 차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경기장이 금시 터져나갈듯 와－ 하는 함성소리가 터져올랐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민족적정서가 잘 반영된 그네뛰기경기는 체육절의 분위기를 한층 이채롭게 해주었다.

특파기자

새로 넣은 아홉번째 경기종목

해주시수예품 및 초물공장은 종업원수도 얼마 되지 않는 자그마한 일터이다. 하지만 체육절날 구내에 펼쳐진 체육열기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공장에서는 이번 체육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며칠전부터 경기종목수를 놓고 협의회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률동체조, 배구 등 8개의 종목이 선정되였다.

그런데 마감에 종업원들속에서 집단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과시하는 바줄당기기를 경기종목에 넣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바줄당기기는 종업원들이 많은 단위들에서나 하는것으로 생각하던 공장의 일군들은 그만에야 머리를 쳤다.

그리하여 경기종목수는 8개로부터 9개로 늘어났다. 이날 번개와 우뢰팀으로 나뉘여 진행된 바줄당기기경기를 응원자들은 물론 오가던 사람들도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와－와－ 환성을 올리며 승벽내기로 응원하였다.

집단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과시하며 진행된 바줄당기기경기는 공장종업원들의 체육열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특파기자 리승철

농장원들을 기쁘게 해준 씨름경기

체육절에 염주군 남압리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씨름경기가 진행되였다. 씨름에 열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도그럴것이 이곳 농장을 찾으면 류달리 눈에 띄는것이 여기저기에 꾸려놓은 씨름장들이다.

이곳 농장에서는 명절날은 물론 하루일이 끝난 저녁무렵이면 씨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농장의 장철식, 리훈일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분조장들도 씨름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들은 전국적인 농업근로자들의 씨름경기에서 련전련승하여 농장의 영예를 떨치였다.

오늘 이곳 리에서는 씨름경기에서 우승한 분조장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여 온 농장에 체육열풍이 더 세차게 일게 하고 그것을 계기로 농장원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모든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남압땅에 일고있는 체육열기는 그대로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가려는 뜨거운 애국심, 향토애의 발현이다.

특파기자 송창윤

로동과 국방을 위하여

남포의학대학에서

체육절 아침부터 남포의학대학 구내는 체육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다.

호각소리, 북소리, 꽹과리소리로 운동장은 떠나갈듯 하였다.

축구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예비과 학생들과 전문부 학생들의 축구경기도 공방전을 이루었지만 교원들의 배구경기도 치렬하였다. 그 어느 집단이나 전술적짜임새도 높은 수준이였고 선수들의 기술동작들도 전문선수들 못지 않아 혹시 전문체육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운동복을 입고 경기장에 나와 응원에 열중하는 대학일군들의 모습에서도 교정에 일고있는 체육열풍을 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구기종목의 경기들에 이어 여러가지 종목의 국방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한길되는 담장도 단숨에 날아넘는 대학생들의 미더운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어 진행되는 수류탄던지기경기도 볼만 하였다. 처녀대학생들도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여 수류탄을 힘껏 던지는데 다들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온 나라에 세차게 일고있는 체육열풍속에 자신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가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더웠다.

당의 방침대로 모두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로동과 국방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가니 교수교양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큰 성과들이 이룩된다는 이곳 학장동무의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운동장에 체육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와－와－ 터치는 함성소리가 저 멀리 하늘가로 더 우렁차게 울려갔다.

특파기자 주창선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경쟁열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체육절에 함흥시와 강계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채로운 체육 및 민속경기들로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날의 경기들은 체육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체육열의를 그대로 펼쳐보이였다.

함흥시에서

함흥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체육절을 의의깊게 보냈다.

함흥경기장에서는 함흥수리동력대학과 함흥화학공업대학 대학생들의 축구, 롱구, 배구, 바줄당기기 등 여러가지 종목의 경기들이 열기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두 대학사이의 치렬한 축구경기도 볼만 하였지만 바줄당기기, 발목묶고달리기 등 모든 종목의 경기들이 집단의 단결력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좋은 경기들로서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기들이 진행되는 동안 관람석에서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하여 온 경기장이 떠나갈듯 하였다.

함흥의학대학, 함흥약학대학, 함흥통계전문학교를 비롯한 시의 다른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도 배구, 롱구, 집단달리기,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체육경기들과 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여 체육절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함흥광장에서 진행된 시의 청소년학생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까지 떨쳐나와 열렬히 응원도 하고 박수갈채도 보내주어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이날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시급기관들,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 여러 체육단들에서도 여러가지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면서 체육절을 즐겁고 의의있게 보내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강계경기장에서

강계경기장에서는 강계시의 동별체육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대중률동체조, 공안고달리기, 100m달리기, 국방체육 등 여러 종목의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지난 기간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련마한 자기들의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우리 선수 이겨라!》고 웨치며 북을 치고 기발을 휘두르는 응원자들의 열기띤 응원이 고조를 이루는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들이 더욱 치렬해졌다.

이날 충성동과 야학동의 선수들이 겨루는 바줄당기기경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바줄을 당기는 두 단체 선수들의 투지와 배짱이 결코 짝지지 않는것으로 해서 경기는 여러 회전을 거듭해서야 승부가 났던것이다.

남산동, 대응동, 수침동, 북문동을 비롯한 여러 동들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공안고달리기, 발목묶고달리기 등 여러 경기들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관람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날 진행된 경기들은 집단의 전투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였다. 시안의 녀맹돌격대원들도 자기들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며 경기마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뜻깊은 체육절을 맞으며 강계경기장에서 진행된 체육경기는 강계정신의 창조자답게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드는데서도 기수,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려는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함흥광장에서－

－강계경기장에서－

우리 나라 리세광선수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의 리세광선수가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조마운동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널리 알려진 리세광선수의 경기는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일념안고 경기장에 나선 그는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어려운 동작들을 재치있게 수행하였다.

리세광선수는 남자조마운동에서 15.416점으로 우크라이나, 미국선수들을 누르고 단연 1위를 하였다.

홍은정선수에 이어 또다시 우승의 단상에 오른 우리 나라의 리세광선수에게 관람자들이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는 그의 모습에는 선군조선의 체육인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조국의 영예를 떨친 기쁨과 감격이 어려있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쾌승에 이어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는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인민들을 더욱 기쁘게 하여주고있다.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 도착

나기브 싸위리쓰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박명철 체신성 부상과 에젤딘 헤이칼 주조 에짚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상주대표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미래에로 나아가는 인민의 기쁨

문수물놀이장에서

10월의 하늘가에 행복의 메아리 끝없이 울려퍼진다

물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맑고 푸른 창공에 존엄높은 우리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뜻깊은 10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물놀이장, 물의 세계에 행복과 기쁨, 격정과 환희의 파도가 세차게 설레인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펼쳐주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따사로운 어버이품,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문수물놀이장의 곳곳마다에 가득히 넘쳐흐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10월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몸소 찾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방대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불과 9개월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하시며 문수물놀이장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찾아와 마음껏 휴식하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문수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정말 잘 꾸렸다고,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듣기에도 보기에도 처음인 문수물놀이장의 희한한 모습을 끝없는 경탄과 환희속에 보고 또 보며 인민은 머지않아 이 땅우에 펼쳐질 사회주의부귀영화가 어떤것인가를 꿈 아닌 현실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한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지금 문수물놀이장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 더욱더 흥성이고있다.

시원하게 트인 드넓은 공간에 수십개의 수조와 물미끄럼대, 체육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야외물놀이장과 파도수조와 초음파수조 그리고 여러가지 한증방과 운동실을 비롯하여 물놀이와 몸단련에 좋은 각종 시설들이 들어앉은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그 어느곳을 둘러보아도, 그 어디를 가보아도 좋다. 건평이 10여만㎡나 되는 물놀이장의 곳곳마다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희열과 랑만으로 하여 가슴이 저절로 벅차오른다.

자연도 이런 희한한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지 계절은 가을이여도 10월의 따스한 해볕은 야외물놀이장의 곳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기는 그들의 온몸을 포근히도 어루쓴다.

하기에 한여름철도 지난지 오랬건만 이곳으로는 매일과 같이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오고있다. 그들중에는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의 사람들과 로인들, 어린이들도 많다.

누구나 보기만 해도 뛰여들지 않고서는 못 견딜, 마음껏 헤가르며 마음껏 즐기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차지 않을 맑은 물의 세계앞에서 젊은이면 어떻고 늙은이와 어린이면 어떠랴.

문수물놀이장의 모든것이 다 그러하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제일 많이 끌어당기는것은 역시 물미끄럼대이다. 그 이름만 해도 급강하물미끄럼대, 무지개물미끄럼대,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 물결파물미끄럼대 등 이루 다 꼽을수 없다. 그중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의 길이는 무려 200여m에 달한다.

개개의 물미끄럼대들은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있어 사람들은 나이와 체력에 알맞는 곳에서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겨 시간가는줄 모른다. 봉사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아찔하게 솟은 급강하물미끄럼대에서 살갈이 지쳐내리는 젊은이들, 뽀트를 타고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는듯한 쾌감에 열림식물미끄럼대를 즐겨찾는 중년의 사람들,

그런가하면 각종 유희기구들이 즐비한 아동종합물공원에서 물미끄럼대를 타며 좋아라 어쩔줄 모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가.

헤염과 물놀이, 물미끄럼대타기도 좋지만 벼랑타기와 탄력망, 롱구와 배구, 탁구 등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마음껏 진행할수 있는 실내체육관도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넘쳐흐르는 뜻깊은 10월 문수물놀이장에 꽃펴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새겨주는것인가.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한 외국인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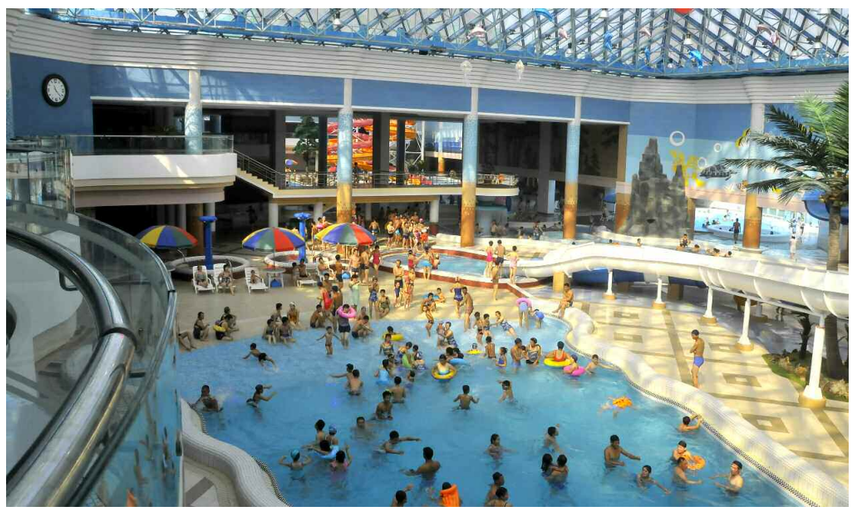
《저렇듯 시름없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현실은 나에게 꿈의 세계로밖에 안겨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것은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때문이다.》

꿈의 세계!

그렇다. 인간의 소원과 념원이 돈에 의해 롱락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언제 가도 이루지 못할 꿈의 세계가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눈앞의 현실로, 평범한 근로자들의 실생활로 꽃펴나고있는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자랑할만 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문수물놀이장에서 기쁨의 물소리, 행복의 물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진다. 장쾌한 그 소리와 더불어 사회주의부귀영화가 다가오는 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뜻깊은 10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심장으로 터치는 감격의 목소리

장군님생각

나와 우리 가정은 오늘 네번째로 여기 문수물놀이장에 찾아왔다.

여기에 올적마다 실내물놀이장 중앙홀에 모신 어버이장군님의 립상을 찾아 경모의 인사를 드리군 한다.

푸른 파도 출렁이는 바다가 모래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를 때면 저도모르게 눈굽이 젖어든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시장철 행복의 물보라 날리는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인민의 행복이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였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렇듯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이처럼 희한한 물놀이장을 일떠세우신것이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커만 갈수록 어버이장군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 리혁성

세계가 부러워하게

나는 오늘 물놀이를 하면서 이곳에 참관온 외국인들을 보았다.

부러움에 찬 눈길로 우리를 보며 사진도 찍고 엄지손가락도 내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이 제일이며 이 세상에 우리 인민만큼 행복한 인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하나를 건설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대걸작으로 만들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창조실력이 오늘 이렇듯 온 세상이 경탄하는 문수물놀이장을 일떠세웠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문명의 높은 령마루에서 세계를 굽어보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재부를 창조해나가는 선군혁명의 골간으로 준비해나가겠다는 결의가 더욱 굳어진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학생 조은철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이렇게 문수물놀이장에서 한생의 추억에 남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나니 《조국찬가》의 선률이 저절로 흘러나오는것만 같았다.

꿈속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했던 저 문수물놀이장이야말로 그림처럼 황홀하여 눈이 부신 내 조국의 모습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가는 곳마다 펼쳐진 이 땅이 바로 심장을 바쳐 빛내여갈 우리의 공화국이라는것을 가슴에 새겨안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는것을 오늘 다시한번 현실로 체험하였다.

약동하는 내 조국에 젊음을 보태주는 심정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며 자식들도 훌륭히 키워 선군의 내 조국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겠다.

함흥시 사포구역 새거리1동 박옥숙

단상

여기에 바다가 있다

사람들은 끝간데없는 바다는 옮길수 없다고들 한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허물수 있고 그 아무리 세찬 강물이라도 휘여잡을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듯 무한대한 바다가 수도 평양에,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없는 여기 문수물놀이장에 펼쳐졌다.

《바다물에 몸을 잠그니 기분이 저절로 둥— 뜨는것 같애요.》

《세월이 하도 좋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바다물이 사람들을 찾아오는군요.》

맑고 깨끗한 바다물에 몸을 푹 잠그고 너나없이 즐겁게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밝은가.

창조와 로동으로 달아오른 몸을 바다물속에 푹 잠그고나면 쌓인 피로가 쭉 풀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인민들에게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우리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가 사무치게 안겨온다.

형성안만 하여도 113차에 걸쳐 지도해주시고 물미끄럼대와 대형벽시계, 벽에 붙이는 타일 색갈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바다물보장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주시고 수송관공사도 제기일에 끝내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다주시려는것이 그이의 숭고한 뜻이기에 멀리 서해의 바다물도 그 사랑에 실려 어김없이 인민들을 찾아오는것이다.

수조에 넘쳐나는 바다물,

그것은 진정 인민을 위해서라면 바다도 통채로 떠옮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안아온 사회주의문명의 새 풍경이다.

정녕 서해의 푸른 바다는 멀리에 있어도 우리 원수님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크나큰 바다가 여기에 있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기쁨의 파도가 끊임없이 물결치는 문수물놀이장의 유정한 파도소리는 이렇게 말해주는것만 같다.

여기에 바다가 있다!

글 및 사진 리신향

랑만과 희열이 넘쳐나는 곳

실내체육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문명이 안아온 랑만과 희열은 실내체육관에도 차고 넘친다.

롱구장, 배구장, 바드민톤장은 물론 최신식운동기재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고 탄력망운동과 벼랑타기도 할수 있어 사람들에게 물놀이에 못지 않은 쾌감을 안겨준다는 실내체육관,

우리가 이곳에 들어서니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환성으로 떠들썩하였다.

탄력망우에서 고무공처럼 튀여오르는 귀여운 어린이들이며 마라손선수마냥 달리기운동기재우에서 쉼없이 달리는 총각들과 맵시있는 자세로 보링공을 굴리는 처녀들,

물놀이장에서 만나 통성을 한 사람들이 서로 팀을 묻고 마음을 합치며 승부를 다투는 배구경기도 볼만 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것은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벼랑타기이다.

가파로운 벼랑을 오르던 한 청년이 더이상 올라가지 못한채 중턱에서 내려오려다가 옆에서 기세좋게 벼랑을 오르는 로인을 보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체육관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안내원 주향희동무는 이렇듯 물놀이와 몸단련을 같이할수 있게 다기능화된 물놀이장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하면서 여기 실내체육관에 깃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겁고도 다심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후더워졌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설계에 예견되여있지 않았던 실내체육관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던 그 나날 일군들이 생각 못한 자그마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체육관의 기둥마다에 구비된 탄성보호판들을 쓰다듬어보면 운동에 열중하던 청년들이 부딪쳐 상할세라 마음쓰시던 친어버이사랑이 어리여오고 벽체에 설치된 롱구판들을 보아도 롱구기술이 미숙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훈련할수 있도록 해주신 다심한 정이 가슴가득 넘쳐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보내던 그 작은 세부들에도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들에게 단 한점의 티도 없는 백만점짜리 재부를 안겨주시려 심혈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눈굽이 젖어들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높으신 뜻을 그대로 이으시여 사회주의문명의 새 화폭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

그 크나큰 사랑과 무한대한 정으로 마련된것이 오늘의 랑만과 희열이며 번영의 래일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의 천만복이다.

온 세상이 부럽도록 랑만과 희열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오르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오늘과 래일은 이렇듯 환희롭다는것을 다시금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여기 문수물놀이장 실내체육관이다.

글 및 사진 승철진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지난 10월 4일 인천에서 있었던 북남고위당국자들의 접촉은 북남관계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도 일정에 올라있다.

이제 중요한것은 모처럼 마련되여가고있는 개선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에 상반되는 부당한 처사로 온 겨레를 분노케 하고있다.

지금 강행되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10일부터 남조선당국은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삐라살포놀음을 또다시 벌려놓고있다.

이번 삐라살포도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남조선당국의 로골적인 묵인과 괴뢰군부대들의 적극적인 군사적비호밑에 뻐젓이 강행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전연에 배치된 아군부대들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파탄시키기 위한 기구소멸전투에 진입하였다.

결과 삐라주머니를 매달고 날아들어오던 기구들이 격노한 우리 군인들의 무자비한 화력타격에 의하여 공중에서 풍지박산이 되여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준것으로 된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기구소멸전투에 의해 삐라살포작전이 파탄된데 대하여 응당한 교훈을 찾고 깊이 반성할 대신 마치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는것이다.

괴뢰들은 터무니없이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란자를 내세워 우리가 무력대고 총탄을 란사하는 도발을 걸어오고 그것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북남기본합의서에 대한 정면도전인것처럼 함부로 떠들어대고있다.

된매를 맞는게 그렇게도 싫으면 애당초 매맞을 못된짓을 하지 말았어야 하였을것이다.

원래 북남관계개선이 남조선당국의 《국책》이라면 그에 배치되는 삐라살포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저지시켰을것이고 만약 무능하여 막을수 없었다면 우리 군대가 취한 정의로운 행동을 고맙게 여겨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가 북남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체제상특성》과 《기본적권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대며 인간쓰레기들이 기고만장하여 날치게 만들고 《자률적판단》과 《관련법이 없다.》는 구실밑에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광분하도록 적극 부추기기까지 하였다.

지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군사적대응에 대하여 몇발의 총탄이 군사분계선근처에 떨어진것을 놓고 그것을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북남기본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도발적행위》라고 요란스럽게 걸고들고있다.

묻건대 남조선당국이라면 서울 한복판에서 저들의 《정권》을 반대하고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이러저러한 행동이 거세진다면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었겠는가.

아마 그 《정권》을 비방중상하고 뒤집어엎기 위한 정의로운 삐라살포도 《체제상특성》과 《헌법상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유엔헌장이나 정전협정, 북남기본합의서의 어느 조항, 어느 대목에 상대방의 체제를 헐뜯고 제도를 전복할것을 노린 삐라살포와 같은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를 벌려도 된다는 문구가 있는가.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을 말은 안하는것보다 못하다.

우리와 마주앉아 호상 비방중상중지를 확약한 남조선당국이 돌아앉아서는 그 무슨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삐라살포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분별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까지 우리의 핵문제를 또다시 거론해대며 《북이 도발과 유화의 이중적행태를 연출하고있다.》는 식으로 비방중상의 앞장에 서있으며 북남관계개선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대화는 있어도 《원칙》만은 저버릴수 없다며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푼수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의 역겨운 몰골이다.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바라고 고위급접촉이 성사되기를 소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례의부터 갖추어야 한다.

1차고위급접촉에 나왔던 그 당사자들이 과연 무슨 체면과 명분으로 2차접촉에 나와 천연스레 얼굴을 들고 우리를 마주볼수 있겠는지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순한 행동과 고약한 언사가 지속될수록 《대화정례화》타령이나 《통일방안》주장이 제 낯이나 내고 남은 임기나 무난히 치르려는 집권자의 간특한 흉심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일뿐이다.

그가 누구든 자기의 리기적흉심으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가로막는다면 천벌을 면치 못한다.

지금은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관계개선에 발벗고 나서겠는가, 아니면 민족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놀음으로 세월이나 허송하겠는가 하는 저들의 진속을 온 겨레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력사를 쓰자는 우리의 진정을 깊이 새기고 모처럼 마련된 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삐라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높은 섬멸적인 물리적타격으로 이어질것이다.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103(2014)년 10월 12일
평양

많은 꿩과 노루를 놓아주었다

황해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향토를 꾸리는 사업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후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입니다.》

지난 8일 황해북도에서 또다시 1만여마리의 꿩과 수백마리의 노루를 산에 놓아주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재부를 더욱 늘여갈 황해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수많은 꿩과 노루들이 린산군과 연탄군, 서흥군의 풍치수려한 산들에 보금자리를 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황해북도에서 꿩, 노루를 많이 길러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시고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황해북도에서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꿩, 노루를 적극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산이 많은 도의 실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내밀어왔다.

이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온 도에서는 지난 30여년동안 수십만마리의 꿩과 수만마리의 노루를 도의 산들에 놓아주었다.

올해 도당위원회에서는 꿩과 노루를 길러 놓아주는 사업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는 과정으로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산과 들을 더 아름답고 풍치수려하게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꿩들이 야생조건에 쉽게 순응될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튼튼하게 키워냈다.

일군들은 자주 현지에 나가 꿩, 노루기르는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또한 도에서는 꿩과 노루들을 주변산들에 놓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먹이조건보장에 힘을 넣어 많은 꿩과 노루가 푸른 숲에 보금자리를 펴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올해에도 황주, 곡산, 린산군을 비롯하여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 정성을 다해 기른 꿩과 노루들을 린산군 상하리와 연탄군 풍답리, 신흥리, 서흥군 문무리주변의 숲이 무성한 산들에 놓아주었다.

많은 꿩, 노루를 놓아준 황해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잘해나갈것을 계획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인간쓰레기들이 또다시 감행한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런 상태에서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이 열릴수 있겠는가고 내외여론들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번 삐라살포행위의 주범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관계를 풀자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처신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에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대화국면이 깨질수 있고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도 하고 알아들으리만큼 충고도 주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민간단체의 그 무슨 《자률적행동》이니,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하는따위의 동이 닿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간추물들의 삐라살포망동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적극 부추기였다. 우리의 경고에 도전하여 감행된 이번 삐라살포행위에 대해 괴뢰패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현실은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삐라살포망동이 북남관계에 최악의 장애물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북남관계의 파국상태가 지속되고 긴장이 격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남관계의 악화로 우리 민족에게 차례질것은 분렬의 지속과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뿐이다. 최근년간 모진 우여곡절을 겪은 북남관계를 통하여 우리 겨레는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초래할것이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고있는 대결조치인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것은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의 철폐를 지향하는 민심의 반영이다. 이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펼쳐진 남조선 각계의 열렬한 북남공동응원열기와 경기장들에서 터져나온 《우리는 하나다》의 힘찬 합성은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대범한 용단으로 마련된 대화분위기는 응당 고조되여 긴장완화와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에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로막는 처사는 나라와 민족앞에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수 없는 가장 엄중한 반역행위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이번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 대해 《초보적인 상식도 량심도 도덕도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 《안팎이 다른 처사》,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행위》,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 등으로 락인, 단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광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날로 격화시키고 무력충돌과 나아가서 전쟁까지 몰아오는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분위기는 공허한 웨침이나 기만적인 말치레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자면 정세파국의 근본요인으로 되는 비방중상과 온갖 자극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더우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것은 로골적인 적대감의 표시로서 신뢰는 고사하고 대결과 긴장만을 고조시킬뿐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당국도 비방과 중상이 《신뢰조성》이 아닌 불신과 적대감조성의 근원이라고 인정하고 그 중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비방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인간쓰레기들을 극구 부추겨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삐라살포망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최근에도 군사분계선전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수십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삐라와 미국돈, 유치한 물건짝들, 불순종교선전물들을 살포하였다. 이로 하여 북남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격화되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언제 쌍방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첨예한 상태가 조성되였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삐라살포도발을 감행하는것이 화약고옆에서 불장난을 하는것이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뻔한 사실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심리모략전은 명백히 하나의 전쟁행위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침략자들은 의례히 전쟁전야에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공갈 등으로 일관된 심리전놀음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공인되여있다. 지금과 같이 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되여있는 때에 괴뢰패당이 우리를 겨냥한 삐라살포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하는것은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분별없는 추태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비렬한 음모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미국은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정신에서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있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에 한사코 제동을 걸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면서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대결에로 극구 부추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이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도발에 열을 올리는것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뒤에서 적극 후원해주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 모략군들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추물들에게 돈까지 쥐여주며 삐라살포행위에로 내몰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최근 미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워싱톤에 있는 외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라는데서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느니 뭐니 하면서도 《비핵화과정에 지장이 되는것을 우려》한다는 매우 고약한 수작을 내뱉았다.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흉악한 속심이 그대로 비껴있다.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을 반공화국삐라살포도발에로 몰아댔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이 동조해나섬으로써 북남관계는 또다시 험악한 파국을 맞게 된것이다.

현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려고 발악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번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 북남관계에 미친 파국적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전도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새겨듣고 리성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라 설 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민족적사변

총련일군들 담화 발표

10.4선언발표 7돐에 즈음하여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3일과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력사적인 10.4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민족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통일유훈을 실현하시기 위해 2000년의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채택에 이어 2007년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10.4선언을 발표하시여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는 확고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절절한 그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피력하였다.

10.4선언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이라고 언명하였다.

10.4선언이 리행된다면 조국통일은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옹호문제까지 명시된 선언에 따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담화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신심을 안고 북남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리념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언명하였다.

전체 상공단체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0.4선언을 받아안고 동포들 모두가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던 그날의 광경은 재일조선청년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제2의 6.15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기백과 정열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무현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은 10.4선언발표 7돐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겨레에게 안겨주신 선언의 력사적의의를 다시한번 되새기고있다고 언명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량옥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10.4선언을 받아안고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재일동포녀성들이 기쁨과 희망으로 끓어번진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마련되였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기어이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황명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부영욱 총련 오사까부본부 위원장, 김춘권 총련 효고현본부 위원장, 장태호 총련 후꾸시마현본부 위원장, 김덕연 총련 기후현본부 위원장, 박철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위원장은 담화들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여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선언의 발표는 6.15통일시대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또 하나의 민족사적사변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모든 동포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을 괴롭히는 두 력사》

인디아학자 글 발표

인디아학자 꾸마르 굽따가 10일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제4언론》에 《미국을 괴롭히는 두 력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1950.6.25.—1953.7.27.)에서 미국이 패전한 력사적사실과 북조선이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놓고 대단히 괴로와하고있다.

《국치일》인가, 《승전일》인가

조선전쟁에서 북조선이 승리하고 미국과 남조선이 패하였다는 사실은 패자인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72시간내에 조선전쟁을 《결속》하고 나아가서 중국을 침공하겠다던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독립전쟁, 1812년전쟁, 메히꼬전쟁, 미국—에스빠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가 넘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미국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처참하게 패배하였으며 자기의 패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1953년 7월 27일 항복서인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하고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불행이다.》고 하면서 패전과 항복을 공식인정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정부》가 본래 군사분계선이였던 38°선이남의 개성, 옹진, 배천, 연안 등 일대의 방대한 곡창지대를 북조선에 섬겨바치고서야 항복서에 수표할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패전의 또 다른 하나의 증거이다.

항복서에 수표하고 미국에 돌아간 클라크는 비행장에서 두줄기의 눈물을 흘리였으며(그의 어머니의 증언) 1954년에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철직되였다.

미국잡지 《타임》은 미국의 패배에 대하여 《최악의 패배》라고 전하였으며 미국은 이 괴로움과 고통을 덜기 위하여 조선전쟁에서의 패전을 《승전》으로, 조선의 핵보유를 비법으로 묘사하고있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하여 더 큰 손해를 보고있다.

조선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를 미국이 자인하였다는것은 미국정부가 정치군사거두들을 조선전쟁에서의 련전련패의 책임으로 모조리 교체하거나 철직시켰다는 사실로써도 명백히 확인된다.

조선전쟁기간 미국은 자기 대통령을 트루맨으로부터 아이젠하워로 교체하였으며 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맥아더, 릿지웨이, 클라크로 련속 갈아댔고 미8군사령관 역시 5번이나 교체하였다.

어느 한 미국회 하원 의원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회 상하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연설할 때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많이 썼는데 이제와서는 참패를 〈승리〉라고 하고있으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쟁직후 남조선《정부》는 미국이 항복서에 수표한 1953년 7월 27일을 《국치일》(패전의 치욕을 당한 날)로 선포하였으며 그후 수십년동안 매해 이날을 전쟁패배에서 《교훈》을 찾기 위한 계기로 삼아왔다.

《국치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널리 공식적으로 사용되였던지 이 단어는 현재도 남조선의 여러 사전들에 올라있다. 그러다가 전후 수십년이 지난 후에 미국과 남조선《정부》는 돌변하여 《잊혀진 승리》라고 하면서 국치일을 《승전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는데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락동강지구전투기념식》이라는 괴상한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세계의 많은 박물관들과 거의 모든 문서고들에 무진장하게 보관되여있는 미국의 패전증거자료들을 다 불태운다고 하여도 자기가 선포한 국치일을 《승전일》로 바꾸는것만은 자기자신까지 모국의 다른 출판물들도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있다.》고 썼다.

핵무기전파인가, 핵무기제작인가

미국은 북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제작했다고 제창하고있다.

바로 이 말이 모순적이라는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선명해지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말그대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지 핵무기제작방지조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조약의 핵심사항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전파와 핵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새로 제작하거나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핵심사항에 비해볼 때 부차적인 조항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핵보유국이 조약의 핵심사항을 란폭하게 어기고 집요하게 핵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더러 조약의 부차적인 조항을 위반했다고 걸고드는것은 법적으로나 론리적으로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다.

보다 더 중요한것은 핵보유국의 집요한 핵위협을 계속 받는 경우에도 핵을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란폭하게 어기고 수십년간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해오는 조건에서 북조선은 국제법을 존중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후 핵을 개발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조선의 《선핵포기》를 요구하고있으며 북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어느쪽이 옳은가?

미국이 요구하는 북조선의 《선핵포기》는 곧 이라크전쟁과 같은 전쟁을 의미하며 북조선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는 명백하게 평화애호적이다.

강도가 문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칼을 든 주인더러 칼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는것과 같은 미국의 요구를 진심으로 옳다고 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미국은 유라시아대륙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로씨야를 겨냥하여 남조선에서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계속 벌리고있으며 이에 대처하여 북조선은 전술로케트발사시험들을 진행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북조선의 자위적조치를 국제기구욕하는 일이므로 할수 없겠는데 미국이 하고있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미국속담에 《돈을 잃는것은 적은것을 잃는것이요, 친구를 잃는것은 큰것을 잃는것이며 민심을 잃는것은 모든것을 잃는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세상이 다 알고있으며 또 자기자신이 선포한 자기의 력사를 기만하려 함으로써 돈도 친구도 민심도 다 잃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말그대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지 핵무기제작방지조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조약의 핵심사항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전파와 핵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새로 제작하거나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핵심사항에 비해볼 때 부차적인 조항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핵보유국이 조약의 핵심사항을 란폭하게 어기고 집요하게 핵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더러 조약의 부차적인 조항을 위반했다고 걸고드는것은 법적으로나 론리적으로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다.

보다 더 중요한것은 핵보유국의 집요한 핵위협을 계속 받는 경우에도 핵을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무기전파까지 동원하여 규탄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가해자인 미국의 핵공갈은 눈감아주고 피해자인 북조선의 자위적조치만을 규탄한 국제기구의 행위는 유엔헌장과 모든 국제법들을 어긴것이며 또한 공정성을 잃은것이다.

국제기구가 공정성을 잃으면 국제기구로서의 권위도 함께 잃게 된다.

이 기구의 성원국들중에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자기 나라를 노린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기 나라의 앞선에서 미국의 위협을 막아준 북조선의 자위적조치를 규탄하는데 동참한 나라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대가로 이 나라에 그 무슨 양보를 한것이 아니라 나약성을 간파하고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미국은 북조선의 거듭되는 평화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갖은 제재와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한 까닭에 이제는 북조선에 약간의 선불질만 하여도 자기 본토가 미싸일세례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북조선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에서 걸음걸음 실패한것으로 하여 미국정치가들의 심리는 매우 복잡할것이다. 게다가 조선전쟁에서의 패전을 미국자신이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오래동안 인정했다는것을 망각하고 패전을 《승전》으로 바꾸려다가 세계적인 민심을 잃었지, 북조선의 핵보유를 비법으로 몰아붙이려다가 실패하였지 하여 미국의 피로움과 고통은 나날이 더 커가고있다.

미국의 현 세대는 선배들의 실패를 잘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것이다.

력사는 그 무엇으로도 지우거나 고칠수 없다.

미국이 계속 커지기만 하는 고민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북조선의 평화제안을 받아들이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파업과 시위

미국의 워싱톤시에서 8일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으로 시내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도 7일 처지개선을 위한 철도운수부문 기관사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참가자들은 기관사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렬차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프랑스의 빠리에서는 4일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자동차생산부문 근로자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회사당국이 근로자들의 생활처지에는 아랑곳없이 일자리를 대폭 축감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시위진압에 동원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였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도 9월 30일과 10월 1일 당국의 그릇된 환경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많은 환경보호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생태환경을 파괴할수 있는 당국의 무모한 자원개발계획을 비난하였다.

한편 뛰르끼예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7일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들에는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반전구호들을 웨치면서 이웃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에 무력을 동원시키려는 당국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시위진압에 동원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뛰르끼예에서 반전시위

오늘의 세계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다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롯한 유엔개혁은 필수적문제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유엔총회 제69차회의장에서 울려나온 목소리이다.

유엔총회마당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최근시기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로골화되고있으며 분쟁과 충돌 등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고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극단주의에 의한 테로가 날로 성행하고 폭력행위가 증대되고있다.

국제관계에서는 의연히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의 주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으며 내정간섭행위가 우심해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유엔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등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국제기구이다. 유엔은 국제적으로 표면화되고있는 각종 폭행과 무장충돌, 테로와 해적행위, 세계적인 전염병전파, 가난과 굶주림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있다. 그러나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유엔의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까타르추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팔레스티나문제에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메히꼬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거부권행사로 엄중한 국제인도주의법들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막지 못하는 유엔은 필요없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도기네대통령도 현재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비루스의 급격한 전파와 테로와 분파들사이의 충돌이 증대되고있다고 까밝히고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제시할수 없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앙골라부대통령은 유엔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무장분쟁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강한 기구로 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는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우간다대통령은 유엔체계가 변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개혁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가 유엔개혁에 기여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꽁고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하고있는 도전들에 대해 지적하고 자기 나라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높은 경제 및 인구장성률을 유지하고있는 아프리카대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에서 한개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불공평하며 반드시 변화되여야 한다.》

인디아수상은 세계문제는 특정한 나라나 그루빠에 의해 결정될수 없으며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여야 한다, 그 무대가 바로 유엔이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21세기의 요구를 대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다 민주주의적이고 포괄적인 기구로 개편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볼리비아외무상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롯한 유엔개혁이 필수적문제이라고 언명하였다.

유엔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회의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외무상들속에서 련이어 울려나왔다.

오늘 유엔을 개혁할데 대한 요구는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유엔개혁에서 중요한것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유엔이 매개 나라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 때 책임을 다하는것으로 된다.

유엔이 민주화되지 못하면 《민주주의》, 《인도주의》, 《반테로》, 《인권보호》와 같은 여러가지 미명으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허용되게 될것이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이 로골화될수 있다.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전보장리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

만일 유엔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게 개혁되지 않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구인 유엔에 등을 돌려댈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섭

《중재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하수인의 앙탈질

최근 많은 관측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눈에 띄게 버그러졌다고 평하고있다.

량측이 다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제일가는 벗》이니, 《가장 중요한 동맹자》니 뭐니 하고 수선을 떨고있지만 불협화음이 울려나온것만은 사실이다.

오랜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실현하는데서 서로 비호두둔하고 손발을 맞추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과 전면적인 지상작전을 전개하기까지에는 미국의 비호두둔과 뒤받침이 결정적작용을 했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헐뜯으면서 아귀다툼을 벌린것은 서로의 리해타산이 융합되지 못하고있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의 마찰이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한것은 팔레스티나의 독립국가창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높아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독립국가창건의지가 날을 따라 강화되자 이스라엘은 기를 쓰고 이를 방해해나섰다.

결과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매일과 같이 충돌이 발생했으며 그로 하여 중동지역정세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이 《중재자》의 가면을 쓰고 중동지역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지난해에만도 오바마와 국무장관 케리, 국방장관 헤이글 등이 번갈아가며 중동으로 날아갔다. 그들은 뒤골방에서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공개석상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있다는 연기를 노는것을 잊지 않았다.

로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성을 들기에는 미국을 주시하는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너무도 예리했던것이다.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랭대를 받으면서까지 중동평화회담중재에 극성을 부린데는 제나름대로의 타산이 있었다.

만일 지난 시기와 같이 일방적인 이스라엘편들기를 한다면 가뜩이나 날카로와진 아랍나라들의 반이스라엘감정이 반미감정으로 더욱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국제사회에 저들이 모든 문제 특히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군사적충돌을 포함한 중동문제해결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있으며 열심히 노력하고있다는 인상을 조성하여 영향력을 과시하고 지배권을 든든히 확립하자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이였다.

그러나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편역에 습관되여온 이스라엘로서는 미국이 연출하는 이른바 중재자의 역할이 마음에 들리 없었다.

그래서 앙탈을 부리기 시작한것이다. 이스라엘국방상이 《미국무장관 케리가 이스라엘—팔레스티나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잘못된 환상과 구세주적인 열정에 따른것》이며 《미국이 제시한 평화협정안은 그 내용이 적힌 종이장만큼의 가치도 없다.》라고 비난한것이라든가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팔레스티나와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다짐한것 등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란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주적인 핵활동권리를 고수하려는 이란의 강경립장앞에서 미국이 전전긍긍하고있는데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라니움을 계속 농축하게 만드는것은 하나의 엄중한 실책》이라느니, 《이란에 핵무기제조에로 이어질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것을 요구해야 한다.》느니,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체로 행동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에 바빠맞은 미국이 어쩔수 없이 이스라엘을 달래는 길로 나갔다.

얼마전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미싸일방위체계를 위해 추가로 2억 2 500만 US$의 자금을 지출하는것을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 체계를 통해 량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들의 지원이 가지는 《의의》까지 강조했다.

지난 3월 미국무성 대변인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확고부동한 공약을 견지하고있다고 공언하였는가 하면 7월에는 오바마가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불가피하다는것을 《충분히 리해하고있다.》느니, 《어떤 국가도 자국령토에 대한 로케트공격을 용인할수는 없는 일》이라느니 뭐니 하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지어 이스라엘에 탄약까지 제공해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방성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것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중동지역을 무대로 벌려놓았던 미국의 가면극은 끝이 났으며 세계는 안팎이 다른 미국의 이중적태도, 《중재자》의 본심을 다시금 깡그리 파헤쳐보았다.

미국이 그 어떤 요술을 부려도 절대로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감출수 없다. 그러니 자기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하수인의 앙탈질을 탓할것도 못된다.

본사기자 리철혁

ㄱ-41159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